간판스타와 스타간판

(눅20:41-47)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4.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45.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간판스타와 스타간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간판스타와 스타간판'
간판스타는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특정분야를 대표할만한 출중한 최고수준의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간판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축구의 간판스타라고 하면 박지성,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그런 선수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간판은 뭡니까?
그저 글자대로 우리가 풀이해보자면 간판 중에서 최고로 멋진 간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간판 참 멋지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스타간판이라고 글자대로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간판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스타간판이라는 게 신앙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몸 간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영혼은 마음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마음 자체로는 내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마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나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간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간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반복하자면, 마음을 경계로 해서 마음의 바깥쪽과 마음의 안쪽이 있습니다.
마음 바깥쪽으로는 몸이 간판이 돼서 마음으로써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바깥세상이에요.
마음에서 안쪽 세상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큼 천국을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아버지가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군천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안쪽에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형태로 있고, 그 마음 안쪽으로는 지금 내가 연결하기만 하면 연결될 수 있는 천국이 와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간판으로서 몸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안쪽 세상에 연결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은 간판스타가 됩니다.
간판스타는 어떤 분야나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안쪽에 있는 하나님나라 천국과 연결이 될 경우에 이 마음 바깥세상에 대해서 내가 간판스타가 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가정에 있을 때, 나는 마음 안쪽에 있는 세상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천국을 대표하는 간판스타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대표하지 않으면 천국은 대표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뜻,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섭리가 나를 통해서 대표되어야만 합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직장에서 내가 천국을 대표하는 간판스타가 되지 않으면 천국의 뜻이 대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이라고 했어요.
이 샘의 역할을 할 때 나는 이 땅 위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대표하는 간판스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마음 안쪽 세상인 천국과 연결이 되어있을 때는.
친구와 둘이 있을 때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천국을 대표하는 간판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마음의 안쪽에 있는 이 천국과 연결이 끊어져버리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 영혼이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간판인 몸에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쏟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 하면, 바로 몸 간판이 이 세상에서 스타간판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스펙, 우리가 열심히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게 다 스타간판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은 간판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과 마음 뒤의 천국이 연결될 수도 있게 구조가 되어있는 그 '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간판일 뿐인데, 일평생의 노력이 전부 스타간판이 되려고 하는 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재벌이 되어도, 마음이 마음 안쪽에 있는 천국과 연결이 되지 않은 채로 재벌이 되면, 그건 마치 간판에 다이아몬드를 쫙 깔아놓은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러면 간판 자체는 스타간판이 되지요, 이 몸이 나인 줄로 알고 사니까.
그러나 그 간판 내려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있던 그 사람이 마주쳐야 될 세상은 마음 안쪽에 있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마주치게 될 텐데, 그때 일평생 7,80년 노력하고 수고하며 산 모든 마음의 관심이 다 몸 간판 꾸미기였는데, 그 간판이 없어지고 나니까 7,80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벌이었습니다, 대통령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경제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모든 평생의 노력이 간판에 다 쏠려있었기 때문에 간판을 내리자마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완전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민망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마릴린 먼로와 헤밍웨이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헤밍웨이가 '내 생애는 전구의 필라멘트선이 끊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노벨문학상 탔지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때.

마릴린 먼로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가 되었을 때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마음 안쪽으로 있는 천국으로 연결되어야 할 생각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명성을 떨치며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스타간판이 된 거구나!

근데 뒤쪽이 허전한 거예요, 자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까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주께서'의 '주'는 하나님아버지시고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어, 정말 이상하네?

이 몸 간판에 세상의 온 마음을 다 들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생각이 시간과 공간에 다 매여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열어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 안쪽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국한되거나 제한되거나 한계가 정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우주공간이 아무리 무한대로 뻗어 있어도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마음 바깥쪽의 세상이거든요?

마음 바깥쪽으로 달나라 지나서 태양 지나서 태양계를 벗어나고 은하계를 벗어나도, 또 은하계가 있고 또 은하계가 있어서 무한대라고 하지만, 그 마음 바깥쪽의 세상은 아무리 무한대라도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없어지면, 이 우주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음 안쪽으로 우리 마음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지금 그 세상이 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몸 간판을 통해서 접하는 이 세상에서 등을 돌리게 되고 마음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음 안쪽으로 향하게 될 때에 그 안쪽에 있는 천국과 연결이 되는데, 그 천국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세상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었고, 다윗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천 년 전에 그 영혼이 만들어진 자로서 이 세상에 간판을 내걸고 있다가 한 7,80년 살다가 간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천 년 전에 생겨나서 쭉 있는 자였고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있고, 주님은 그 안쪽 세상에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얘깁니다.
즉, 주님은 간판을 천 년 뒤에 단 거예요.
계시기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간판을 다윗보다 늦게 달았다고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육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만 다윗의 자손이지, 그 육체라는 게 간판인데 간판을 치우고 나면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인데 잠깐 30년 동안 세상에 간판을 걸고 계셨던 것이고,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천 년 전에 생겨나서, 간판을 내걸고 7,80년 있다가 간판 내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로 잠자는 형태로 있든 어떤 식으로 있든 간에.

아, 참! 여러분, 이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로 우리 마음이 연결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제 주님이 며칠 뒤에 십자가사건을 일으키시면 그 십자가사건을 통해 우리가 마음 안쪽의 세상, 그런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 다음에 또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건 뭐 한 하셔도 될 얘기 아닙니까?
앞에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실까요?
문맥이 다릅니다.
마음 안쪽 세상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세상이 마음 안쪽 세상과 연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영원한 세계에 계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마음이 연결이 안 될 때는 기껏 이방사람들 믿음 외의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스타간판이 되기를 원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긴 옷 입고 다니고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이게 다 스타간판이 되는 거예요.
스타간판이 되기를 원해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스타간판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로 간판스타와 스타간판의 만남이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이 어딥니까?
사도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간판 중에서 가장 후진 간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있던 것도 다 버렸어요.
세상적으로 스타간판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스타간판의 모든 내용을 싹 다 지우고 거기에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하나만 써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그 간판에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바리새인 중에 최고로 열심인 자다, 이런 스타간판이 될 만한 내용들로 꽉 차있었던 걸 다 지워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전달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샘물이 될 뿐이다, 하나만 딱 써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야말로 스타간판입니다.
간판 중에 왕이에요.

그 둘이 만난 겁니다.
거기서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스타간판 백날 되어봐야 간판 내리면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가 될 텐데, 당신들의 인생 자체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나처럼 되시오'
지금 뒤쪽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간판스타로 사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쩌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호흡합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 바깥쪽을 향하던 내 마음이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거라고 믿으니까.
계속 죽은 거라고 인정하는 거고 죽은 것이라고 나를 설득시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돌아섭니다, 돌아섰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돌아선 채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천국을 대표하는 간판스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런 간판스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샘물처럼 하늘의 뜻과 하늘의 섭리들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게 기도까지 하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 긁어모으려고 하지 않고, 무한대의 하늘의 뜻과 은혜와 섭리를 샘솟게 하고 바깥으로 퍼내 보내는 그런 큰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쪽 세상과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을 부르고 길게 기도를 해도, 다 긁어모으려고 합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연결이 되면 긁어모을 수가 없어요,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열어놓고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샘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샘이 밖에서 물을 받아들이는 것 보셨어요?
샘은 비가 한 시간에 1000ml가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도 샘은 바깥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런데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을 부르며 연결만 되면 어마어마해야 될 사람들이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껏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거예요, 치사하기 그지없게, 악랄하기 그지없게.
긁어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하나님나라와 연결이 안 되면 다 모으는 거예요, 자꾸 모아서 예배당도 키우고, 교인 5천 명이면 만 명으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자고 그러고, 모든 게 긁어모으는 데에 치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결이 돼있으면, 한 사람도 없어도 돼요.
그냥 하늘을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뭣 하러 한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열 사람을 내 곁에 둘 것이며, 백 사람을 내 교인으로 붙들고 껴안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천국을 내보내기에 바쁜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연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백날 부르고 기도를 해봐야 기껏 스타간판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비참한 생의 모습일 뿐이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그분의 죽으심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안쪽으로 바뀌어져서 안쪽에 있는 천국과 연결되어서 천국을 대표하는 간판스타가 될지언정 스타간판이 되겠다고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사는 삶은 중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 안쪽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게 해주시고, 연결됨으로 이 세상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간판스타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